

남북한 관계에서 외집단 공감에 대한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상호작용효과

이 하 연

경상국립대학교

최 훈 석[†]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공동내집단정체성과 타인초점 조망수용의 조합이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과 외집단 전체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를 증진한다는 가설을 남북한 관계 맥락에서 검증하였다. 한국(남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편의 연구에서 남북한 공동내집단정체성인 한민족정체성을 측정(연구 1)하거나 조작(연구 2)하고 조망수용의 초점을 자기 또는 타인으로 조작하였다. 두 편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한민족정체성이 우세한 경우 외집단(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에서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보다 대상 인물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았고, 이는 외집단인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의도를 예측하였다. 반면 남한정체성이 우세한 경우에는 외집단에 대한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공감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남북한처럼 장기간에 걸친 적대적 상호작용이 우세한 집단 간 관계에서 외집단 태도를 개선하고 집단 간 화해를 촉진하는 기제로서 외집단 공감의 역할에 관하여 논하였다.

주요어 : 외집단 공감, 조망수용, 공동내집단정체성, 남북한 관계, 집단 간 화해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 2025, Korean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공감(empathy)은 대인 간, 그리고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는 주요 기제로 제안되어왔다(Batson, 2011; Klimecki, 2019). 이는 대상 인물에 대한 공감의 공감자에게 친사회적이고 대상 지향적 태도와 행동을 야기하며, 공감자와 대상자 간의 우호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대인 간 및 집단 간 갈등 해소의 단초가 마련된다는 주장을 근간으로 한다(Batson & Ahmad, 2009; Dovidio et al., 2004; Stephan & Finlay, 1999).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집단 간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에 대한 공감의 유의미한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고정관념에 기인한 역효과를 유발함을 시사하는 결과들도 보고되었다(예: Galinsky, Wang, & Ku, 2008; Skorinko & Sinclair, 2013). 또한, 집단 간 경쟁이나 갈등 상황에서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이 우세한 경향이 있으며(Thompson & Loewenstein, 1992), 외집단의 입장이나 관점을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를 부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야기하기도 하였다(Epley, Caruso, & Bazerman, 2006). 이처럼 상충하는 연구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 Huang, Peng과 Simmons (2020)는 외집단 공감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각각 실재하는지 검증하는 p -곡선 분석(p -curve analysis)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양방향의 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집단 간 공감 연구에서 대상 집단과 집단 간 관계 특성,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에서의 차이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에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Hogg, Abrams, & Brewer, 2017) 외집단 공감에서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한국인들이 속해있는 집단 간 관계 중 하나인 남북한 관계는 높은 수준의 긴장감과 적대감이 존재하는 갈등 관계이면서도, 남북한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 공동의 내집단정체성을 공유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남북한 맥락에서 외집단 공감과 공

동내집단정체성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집단 간 공감 연구를 확장하고 집단 간 화해에 관한 사회심리학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들의 외집단 구성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망수용 초점과 공동내집단정체성의 상호작용효과를 가설화하고 이를 검증하는 두 편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망수용

공감은 타인의 마음 상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 과정요인과 그 결과를 포괄하는 구조적인 현상이다(Davis, 1994, 2006). Davis(2006)에 따르면, 공감의 선행요인은 공감자 개인 요인(예: 성격, 학습경험)과 상황 요인(예: 공감자-대상자 간 유사성, 대상자가 겪는 사건 특성)을 포함한다. 공감의 과정은 비인지(예: 일차 순환 반응, 운동 모방), 단순인지(예: 고전적 조건형성 반응, 행동 식별), 그리고 고급인지 요인으로 구분되며, 선행 연구에서는 고급인지 과정 중 하나인 역할 수용(role taking)의 효과에 주목해왔다. 역할 수용은 공감자가 대상자의 입장에서 그가 겪고 있는 상황과 사건을 떠올려 보고 그의 생각이나 느낌을 추론하는 과정으로(Stotland, 1969), 주로 조망수용(perspective-taking)으로 개념화되어 연구되었다(Davis, 1996; Batson et al., 1991). 조망수용의 효과를 검증한 초기 연구들은 공감자가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조건과 대상자에게 조망수용을 시행한 조건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해당 연구들에서 조망수용은 공감자와 대상자의 인지표상 간 병합(self-other overlapping; Davis, Conklin, Smith, & Luce, 1996; Myers & Hodges, 2011)을 촉진하고,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가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동정심과 우호적인 태도 및 행동의도를 증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예: Batson et al., 1991; Batson, Polycarpou, et al., 1997). 즉, 조망수용은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처리를 요하는 공감의 인

지적 과정이면서(Roßnagel, 2000) 동시에 공감자의 인지, 정서, 행동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이다.

조망수용이 특정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마음 상태를 상상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심상의 내용은 다양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공감자가 조망수용 과정에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자기초점(self-focused)과 타인초점(other-focused)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였다(Batson, 2009a; Davis et al., 2004). 자기초점 조망수용은 '만약 자신이 대상자가 처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스스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경험할 것 같은지'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타인초점 조망수용은 '대상자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경험할 것 같은지'를 상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예외가 있지만(예: Finlay & Stephan, 2000),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조망수용의 초점에 따라 인지적이거나 정서적 공감 결과에서 서로 다른 양상이 관찰되었다. 한편으로,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에서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보다 공감자와 대상자의 인지표상 간 병합 수준이 높았고(Myers, Laurent, & Hodges, 2014), 자기 관련 사고(예: 자신의 비슷한 과거 경험 또는 대상자와 자신의 유사성 지각)는 더 많이 하는 반면 타인 관련 사고(예: 대상자의 사고, 정서, 행동에 관한 추론, 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및 평가적 반응)는 덜 하였다(Davis et al., 2004). 다른 한편으로,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보다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 타인지향 정서 반응인 동정심이나 연민을 더 강하게 경험했고(Batson, Early, & Salvarani, 1997), 이타적인 동기에 기반한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이 관찰되었다(이에 대한 개관은 다음을 참조: Batson, Lishner, & Stocks, 2015).

외집단 조망수용의 효과성

집단 간 공감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조망수용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

적 효과가 모두 관찰되었다. 외집단 조망수용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조망수용이 공감자와 대상자의 인지표상 간 중첩을 매개로 하여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감소와 우호적인 태도를 예측하였으며(Galinsky & Moskowitz, 2000; Laurent & Myers, 2011), 특히 긍정적인 자기상을 지닌 공감자에게서 자기와 외집단 성원의 인지표상 간 긍정적인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망수용의 순효과가 관찰되었다(Galinsky & Ku, 2004; Todd & Burgmer, 2013). 또한, 외집단 조망수용은 자동적인 인종편향을 경감하여 인종 집단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증진하였다(Todd, Bodenhausen, Richeson, & Galinsky, 2011). 이 외에도 실험실에서 외집단 조망수용이 공감 정서 경험과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태도, 도움행동의도 등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으며(예: Shih, Wang, Trahan Bucher, & Stotzer, 2009; Vescio, Sechrist, & Paolucci, 2003), 조망수용 절차를 활용한 개입전략이 집단 간 인지표상 병합과 정서적 공감 반응을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진한다는 현장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Hodson, Choma, & Costello, 2009).

반면 외집단 조망수용이 대상 집단이나 집단 간 관계 특성, 공감자의 성향 등에 따라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보이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조망수용을 통해 공감자와 대상자의 인지표상 간 병합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기 또는 내집단 특성뿐만 아니라 대상자와 외집단의 특성 정보가 활용되기 때문에, 외집단 조망수용이 공감자에게 외집단(예: 교수, 노인) 고정관념에 일관되는 사고 및 행동(예: 분석과제에서 우수한 수행을 보이거나, 노인의 특징을 자기인식에 병합함)을 촉진하며(Galinsky et al., 2008) 이는 특히 외집단 성원의 특징이 모호하게 제시된 경우보다 외집단 고정관념과 분명하게 부합할 때 관찰되었다(Skorinko & Sinclair, 2013). 이러한 결과는 경쟁이나 갈등 상황에서의 외집단 조망수용이 부정적 고정관념의 현저성을 높여 집단 간 상호작용을

악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외 집단 조망수용의 결과로 내집단이 외집단에게 어떻게 보여질지에 관한 평가 우려와 메타고정 관념(metastereotype; 외집단이 지닌 내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에 관한 자기인식)의 활성화가 제안 되기도 하였다(Vorauer & Sasaki, 2014). 공감자에게서 평가 우려와 메타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인지적 자원의 고갈을 야기하며, 그에 따라 고정 관념적 사고 및 행동 억제에 실패하여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 결과가 발생하였다(Vorauer, Martens, & Sasaki, 2009).

외집단 조망수용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은 내집단과 외집단 성원 각각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비교 분석한 선행 연구로부터도 추론할 수 있다. 이 방면의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 성원에 대한 도움행동은 내집단 공감으로 예측되는 반면 외집단 성원에 대한 도움행동은 외집단 공감이 아닌 지각된 유사성(Stürmer, Snyder, Kropp, & Siem, 2006) 또는 매력도(Stürmer, Snyder, & Omoto, 2005)로 예측되었다. 즉, 같은 상황에 처한 대상자이더라도 내집단 성원일 경우에는 공감이 대상자에 대한 우호적 행동을 예측하는 반면, 대상자가 외집단 성원일 경우에는 공감이 우호적인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다. 또한, 경쟁적 이거나 적대적인 집단 간 관계에서는 외집단보다 내집단 성원에게 더 쉽게 공감하는 집단 간 공감 편향(intergroup empathy bias)이 발생하며, 이 편향은 외집단에 대한 반 공감적인 정서 반응(예: 대상자의 불행에 기뻐하거나 대상자의 행운에 불쾌함을 경험함)과 배타적인 태도와 행동을 예측했다(Bruneau, Cikara, & Saxe, 2017; Cikara, Bruneau, & Saxe, 2014).

요약하면, 외집단 성원에 대한 조망수용이 대상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감소와 우호적 태도 및 행동 증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공감자와 대상자가 속한 집단 간 관계에 따라서, 특히 상호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존재하거나 적대적인 집단 간 관계에서는 외집단 조망수용과 공감의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집단 간 관계가 우호적일 때보다도 경쟁 및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 조망수용과 공감을 통한 관계 개선이 더욱 요구된다. 또한, 공감을 선행요인-과정-결과의 구조적, 다요인 현상으로 규정했듯이(Davis, 1994, 2006) 조망수용 과정 외에 공감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존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 조망수용의 효과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형하는 조절변수로 구성원들의 사회정체성, 특히 내외 집단이 공유하는 공동내집단정체성에 주목하였다. 공동내집단정체성은 공감의 구조적 정의에서 제안된 선행요인 중 하나인 공감자-대상자 간 유사성과 유사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정요인인 조망수용의 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추론된다. 다음 절에서는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자기 또는 타인초점 조망수용의 조합효과를 남북한 관계 맥락에서 구체화한다.

외집단 조망수용에서 공동내집단정체성의 조절효과

남북한은 고착된 갈등(intractable conflict) 관계이다(이하연, 권영미, 서정길, 박주화, 최훈석, 2022). 고착된 갈등은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충돌과 경쟁의 지속으로,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외집단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 배타성을 지닌다(Bar-Tal, 2000, 2007). 선행 연구에서 남한사람들은 북한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혜숙, 2000; 양문수, 이우영, 이하연, 2019; 전우영, 조은경, 2000)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에서 남한사람들의 내집단 선호 편향이 일관되게 관찰되었다(Kim & Oh, 2001).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여론조사에서도 남한사람들이 북한을 지원 및 협력 대상이기보다는 경계 및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며(박주화 등, 2023) 남북한 통일에 대한 태도 역시 부정적인 태도가 우세하였다(김범수 등, 2023).

동시에 남북한은 분단 이전에는 단일민족 공동체를 형성했으며, 현재까지 남북한 국민의 대부분이 한민족이라는 점에서 구성원들은 한민족 정체성과 남한정체성(국가정체성)의 다중 사회정체성을 지닌다(이하연 등, 2022). 남한 구성원의 다중 사회정체성은 남한정체성이 한민족정체성에 위계적으로 내재하는(nested) 층소구조를 이룬다(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Jung et al., 2016). 이때 관찰되는 한민족정체성은 개념적으로 남북한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동내집단정체성(common ingroup identity)에 해당한다(Gaertner, Dovidio, Anastasio, Bachman, & Rust, 1993; Gaertner, Mann, Murrell, & Dovidio, 1989). 공동내집단정체성은 하위범주 외집단을 공동의 상위범주의 구성원으로 제범주화 해줌으로써 외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증진한다(Dovidio, Gaertner, & Saguy, 2007). 남북한 관계에서도 한민족정체성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유연재, 김혜숙, 2000), 남북한 통일 지지 태도(최훈석 등, 2019) 및 통일지향 행동의도(박찬, 최훈석, 2023)를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일부 연구에서 한민족정체성의 긍정적인 효과는 한민족이 남북한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하위성원(예: 재외국민, 디아스포라)으로 구성되었다고 지각될 때 발생하는 것을 보이기도 하였다(이하연, 최훈석, 노중현, 도은별, 한지민, 2023).

이처럼 한민족정체성은 남북한을 아우르는 공동내집단정체성으로 남북한 구성원들의 집단 간 태도 및 행동을 조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토대로 남북한 관계에서 외집단 조망수용의 효과를 한민족정체성 우세성이 조절하는 가설을 상정하였다.

먼저, 사회정체성 층소구조에서 외집단과 구분되는 하위수준 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할 경우에는 외집단 조망수용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 선행 연구에서 내집단동일시 수준이 높은 경우 외집단 성원에 대한 조망수용이 외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발하였다(Tarrant, Calitri, & Weston, 2012). 내집단동일시를

다요인으로 규정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내집단 동일시의 하위요인인 찬양(glorification)이 외집단 으로부터의 위협을 정적으로 예측하였으며 이는 외집단 조망수용에 대한 저항과 상관되었다(Berndsen, Thomas, & Pedersen, 2018). 이를 통해 집단 간 갈등 관계에서 하위수준 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한 경우에는 외집단 조망수용이 이루어 지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을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면, 한민족정체성보다 남한정체성이 우세할 경우에는 조망수용 초점에 관계없이 외집단 공감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정체성 층소구조에서 내외집단을 포괄하는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하면 외집단이 공동의 내집단 성원으로 범주화됨에 따라 외집단 조망수용이 촉진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추론과 일관되게, 국가정체성과 인종정체성이 공존하는 미국 백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Dovidio 등(2004)의 연구에서 공동내집단정체성(국가정체성)이 우세할 때 하위수준 내집단정체성(인종정체성)이 우세할 때보다 외집단인 흑인에 대한 조망수용 수준이 높았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공동의 내집단 성원으로 여겨지는 대상자가 부당한 상황(예: 인종 차별)에 처한 것을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조망수용이 일어날 것으로 전제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측정하였고, 조망수용 유형을 구분하거나 독립변수로써의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논했듯이, 조망수용은 공감 결과에 선행하는 과정요인이며, 자기초점과 타인초점으로 그 유형이 구분되기 때문에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한 상황에서 조망수용 초점에 따라서 외집단 공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할 때,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하는 경우보다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하는 경우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공감이 촉진될 것으로 추론하였다.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하여도 외집단 성원에게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하면 타인 관련 사고보다 자기 관련 사고가

우세해지고(Davis et al., 2004), 그에 따라 내집단에 대한 평가 우려 및 부정적 메타고정관념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Vorauer et al., 2009; Vorauer & Sasaki, 2014). 뿐만 아니라 조망수용이 자기-타인 인지표상 간 병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Galinsky et al., 2005) 자기 관련 사고가 우세하면 내집단 투사(ingroup projection)와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내집단 투사란, 사회정체성이 축소된 구조에서 상위수준 공동체를 떠올릴 때 하위수준 외집단보다 내집단이 전형적이고 이상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한다(Mummendey & Wenzel, 1999).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함과 동시에 하위범주 내집단정체성이 강할수록 내집단 투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Wenzel, Mummendey, & Waldzus, 2007), 자기초점 조망수용은 자기 및 하위범주 내집단 속성을 우세하게 하여 외집단 공감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론은 상위범주 공동체의 외집단 성원에 대한 내집단 초점의 조망수용이 내집단 투사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관된다(Berthold et al., 2013, 연구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할 때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할 경우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공감이 유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반면,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한 동시에 외집단 성원에게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하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성공적인 공감 경험(예: Batson, Early, et al., 1997)과 우호적이고 이타적인 외집단 태도 및 행동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예: Batson, Polycarpou, et al., 1997; Shih et al., 2009).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면, 공동내집단정체성인 한민족정체성이 강할 때 외집단 성원에게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할 경우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할 경우보다 외집단 공감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가설: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할 경우,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에서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보다 외집단 공감 수준이 높을 것이다. 반

면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하지 않을 경우(즉, 하위수준 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할 경우), 외집단 공감에서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남한) 대학생에게 북한이탈주민을 외집단 공감 대상으로 제시한 두 편의 연구를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매체나 일상에서 남한사람들이 실제로 접촉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사람들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태도가 비슷하여(김혜숙, 2007), 두 대상 집단에게 유사한 심리 기제가 작동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공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하위수준 남한정체성이 상위수준의 한민족정체성에 포섭되는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두 편의 연구에서 상위수준 공동내집단정체성의 고유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상위수준과 하위수준 내집단정체성의 강도(동일시)를 각각 측정하고 상대적인 우세성(상위수준-하위수준 내집단 동일시 차이값)을 예측변수로 사용했다. 연구 2에서는 실험을 통해 한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 우세성을 직접 조작하여 각 정체성의 효과를 검증했다.

본 연구는 기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수행되었다(IRB no. 관리4050-38(2018.5.31)).

연구 1

연구 1은 실험실에서 참가자들의 조망수용 초점(자기 vs. 타인)을 조작하고,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를 각각 측정한 후 이들의 차이값(한민족동일시 - 남한동일시)을 한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우세성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기사문을 통해 경범죄를 저지른 북한이탈주민을 공감 대상으로 제시하여, 조망수용 초점과 공동내집단

정체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예측하는지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설계

연구 1은 2018년 11~12월에 실시되었고, 대한민국(남한) 학부생 73명이 심리학 연구참가점수를 받고 참여하였다(남 25명; 연령 평균 = 21.10, 표준편차 = 2.60). 연구 조건은 1원 2수준(조망수용: 자기초점 vs. 타인초점) 참가자 간 요인 설계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안내를 받고 사전 동의 후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두 개의 실험조건 중 하나에 무선배정되었다(자기초점 조건 37명, 타인초점 조건 36명). G*Power (Faul et al., 2007)를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 표본 수가 73명이었고 두 예측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서 중간 효과 크기($f^2 = 0.15$)일 때 검정력($1 - \beta$) > .90으로 나타나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절차

전체 절차는 실험실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사회 현상 인식 조사 연구’에 참여하여 최근 1년 이내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인식에 응답하는 것으로 안내받았다. 연구설명 후 참가자들의 조망수용 초점이 조작되었고, 이후 참가자들은 사회 사건을 설명하는 기사를 읽고 그에 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내집단동일시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들의 조망수용 초점을 조작하기 위해 Batson 등(Batson, Early, et al., 1997; Batson, 2009a)의 선행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사를 읽기 전 모든 참가자의 독해 방식을 표준화하는 절차로써, 조망수용 초점에 따라 서

로 다른 독해 방식을 지시받았다.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기사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이 아닌 본인의 관점에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글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본인(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은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마음에 떠올리며 기사를 읽도록 지시받았다.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에서, 참가자들은 기사문을 읽을 때 본인이 아닌 기사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글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등장인물(A)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은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마음에 떠올리며 기사를 읽도록 지시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지시문에 일관된 독해 방식을 훈련하는 연습 시행에 참여했다. 연습 시행에서는 A라는 인물이 이사하는 동안 발생한 일들과 그의 생각과 감정을 진술하는 짧은 단락이 제공되었고, 참가자들은 약 30초 동안 개별적으로 예시 단락을 읽었다.

조망수용 초점 조작이 완료된 후 참가자들은 한국(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를 설명하는 기사를 읽었다. 기사는 실제 기사를 가공하여 제작되었고, 생활고와 향수병 등으로 인해 탈북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과 수치가 제공되었다. 그리고 “탈북자 A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경범죄를 저질러 체포되었다는 구체적인 사건이 함께 제시되었다. 마약중독자 또는 마약사범은 선행 연구에서 곤경에 처한 공감 대상자로 사용된 바 있다(Batson, Chang, Orr, & Rowland, 2002).

기사를 읽은 후 참가자들은 기사에 등장한 탈북자 A씨에 대한 공감 정도를 묻는 문항에 응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수준에 응답했다. 전체 설문 응답이 완료되면 사후설명을 시행한 후 연구를 종료하였다.

측정변수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질문지에서 한국인들이 한민족으로서의 내집단 정체성과 남한 국민으로서의 내집단 정체성을 모두 지닐 수 있음을 간단히 설명한 후, 응답자들의 평소 생각과 느낌을 토대로 각 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에 응답하도록 지시했다. 한민족 동일시와 남한동일시를 각각 여덟 개 문항(예: “귀하는 한민족/남한에 얼마나 동일시한다고 느끼니까?”, “귀하는 스스로 한민족/남한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귀하는 스스로 다른 한민족 구성원/남한 국민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끼니까?”; 1 =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9 = 매우 강하게 느낀다)으로 물었으며, 구성개념의 측정 순서(한민족-남한 또는 남한-한민족)는 실험조건 내에서 동일한 숫자로 구역화하였다. 측정 문항은 내집단동일시 척도(Hogg & Hains, 1996)에서 발췌했으며, 한국인들의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를 측정한 선행 연구(이하연 등, 2022, 2023)에서 사용되어왔다. 이후 참가자의 한민족동일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5$)과 남한동일시 문항 평균(Cronbach's $\alpha = .90$)을 구하고, 두 평균의 차이값(한민족동일시 - 남한동일시)을 산출하여 공동내집단정체성인 한민족정

체성의 상대적 우세성 값으로 분석에서 사용했다. 점수가 클수록 한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우세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외집단 공감

기사문을 읽은 직후 제시된 질문지에서 “귀하는 A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의 단일문항으로 측정했다(1 = 전혀 아니다 ~ 7 = 매우 그렇다).

결 과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 1에서 측정된 값의 기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참가자들에게서 한민족동일시(4.42점)보다 남한동일시(5.72점) 수준이 높았으며,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간의 상관이 중간크기 수준으로, $r = .59$, $p < .001$,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되었다(이하연 등, 2022; 최훈석, 이하연, 권영미, 박주화, 2021). 이 외의 독립변수 간, 그리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차상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었다.

본 연구가설인 외집단 공감에 대한 조망수용 초점(자기 vs. 타인)과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

표 1. 연구 1: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및 변수 간 상관

	1	2	3	4	5
1. 조망수용 초점	1				
2. 남한동일시	-.09	1			
3. 한민족동일시	-.05	.59**	1		
4.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	.00	-.26*	.55**	1	
5. 외집단 공감	.13	-.03	.06	.06	1
평균		5.72	4.42	-1.30	4.59
(표준편차)		(1.61)	(1.98)	(1.37)	(1.43)

주. $N = 73$; * $p < .05$, ** $p < .01$; 조망수용 조건은 자기초점 = 0, 타인초점 = 1로 점수화함.

표 2. 연구 1: 외집단 공감에 대한 한민족동일시 상대적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상호작용효과

단계	변수	<i>b</i>	<i>SE_b</i>	<i>t</i>	ΔR^2	R^2
1단계	조망수용 초점	0.37	0.34	1.11	-	
	한민족동일시 상대적 우세성	0.06	0.12	0.51		
2단계	조망수용 초점	0.37	0.33	1.14	-	0.09
	한민족동일시 상대적 우세성	0.10	0.12	0.81		
	조망수용 × 한민족동일시	0.56	0.24	2.30*		

주. * $p < .05$, ** $p < .01$; 조망수용 조건은 자기초점 = 0, 타인초점 = 1로 점수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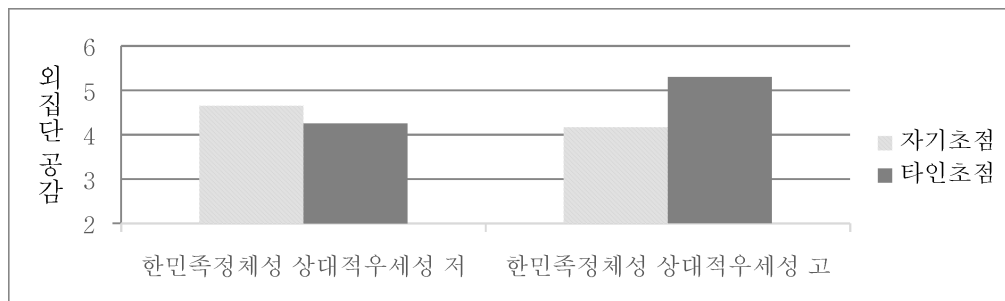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1: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 간 상호작용효과

성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두 독립 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예측변수로 투입(조망수용 조건 자기초점 = 0, 타인초점 = 1로 점수화; 상호작용효과는 두 독립변수의 평균 중심화 값을 곱하여 산출)하는 위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그 결과, 조망수용 조건과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조망수용 조건 $b = 0.37$, $SE_b = 0.33$, $t(69) = 1.14$, $p = .259$;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 $b = 0.10$, $SE_b = 0.12$, $t(69) = 0.81$, $p = .419$, 조망수용 조건과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Delta R^2 = 0.07$, $b = 0.56$, $SE_b = 0.24$, $t(69) = 2.30$, $p = .025$. 연구가설을 기준으로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이 높거나 낮을 때($\pm 1SD$)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참조: Aiken & West, 1991), 한민족정체성 상

대적 우세성이 높을 때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에서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보다 외집단 공감 수준이 높았다, $b = 1.13$, $SE_b = 0.47$, $t(69) = 2.44$, $p = .017$. 반면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이 낮을 때는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과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b = -0.39$, $SE_b = 0.47$, $t(69) = -0.84$, $p = .404$ (그림 1). 이는 본 연구가설과 일관되는 결과이다.¹⁾

1) 한민족동일시 원점수를 예측변수로 설정하여 조망수용 초점과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우세성(한민족동일시-남한동일시) 점수를 예측변수로 설정한 본문의 분석 결과와 일관되었다. 구체적으로, 조망수용 조건과 한민족동일시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조망수용 조건 $b = 0.38$, $SE_b = 0.33$, $t(69) = 1.15$, $p = .254$; 한민족동일시 $b = 0.04$, $SE_b = 0.08$, $t(69) = 0.47$, $p = .636$, 조망수용 조건과 한민족동일시의 상호작용효과가 경계선에서 유의하였다, $\Delta R^2 =$

논 의

연구 1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한민족동일시(공동내집단정체성)와 남한동일시(하위범주 내집단 정체성) 수준을 측정하고 둘 간의 차이값으로 한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우세성 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조망수용 초점(자기 vs. 타인)을 조작하여, 참가자들의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 간의 상호작용이 외집단 성원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감을 예측하는지 검증했다. 그 결과 가설과 일관되게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이 높은 경우, 타인 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보다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 수준이 높았다. 반면,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이 낮은 경우에는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즉,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공감은 공동내집단 정체성이 우세하면서 동시에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 증진되었다.

연구 1에서는 독립변수인 조망수용 초점(자기 vs. 타인) 조작 이후 참가자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문을 읽고 종속변수에 응답한 후에 조절변수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안정적인 개인차로 조절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평소 생각과 느낌을 토대로” 각 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에 응답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사문을 먼저 읽은 것이 일시적으로 한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우세성 수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 원점수, 그리고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에서 조망수용 조건 간 차이가 있었는지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_s < 0.58$, $p_s > .449$. 따라서 연구 1에서 측정된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 조작이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수인 외집단 공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참가자들의 공동내집단 정체성 우세성을 직접 조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상호작용이 외집단 공감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전체 참가자의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 평균이 -1.30점, 표준편차는 1.37점이었고, 상호작용효과의 해석을 위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한민족정체성 상대적 우세성의 +1SD 지점은 0.07점으로 이는 한민족과 남한에 동일시하는 수준이 비슷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 1에서 검증된 결과가 한민족정체성이 실제로 우세할 때 발생하였는지를 해석하는데 제약이 있다. 한민족정체성의 상대적 우세성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 것은 차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증된 결과이기 때문에 강한 증거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한민족정체성 우세성을 실험실에서 직접 조작하여 해당 결과가 반복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내집단정체성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을 모두 조작하여 본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실험실에서 한민족정체성 또는 남한정체성을 우세하게 조작하고 각 조건에서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리고 경범죄자보다 일반적인 대상자에 대한 공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둘째, 종속변수인 외집단 공감을 개념적 및 조작적 정의에서 확충하였다. 연구 1에서는 단일문항으로 외집단 성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 공감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의 고유한 심리경험 표현으로(참조: 최상진, 김기범, 1999) 대상 인물

0.05, $b = 0.32$, $SE_b = 0.17$, $t(69) = 1.91$, $p = .060$. 단 순주효과분석 결과 양상은 본문에 보고한 결과와 동일 하였다.

의 내적 상태를 이해하는 인지적 공감의 결과(Davis, 1994)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이 문항은 연구 1에서 자체 개발되어 외집단 공감을 다룬 선행 연구 결과와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주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유사 공감정서(parallel empathy; Finlay & Stephan, 2000; Stephan & Finlay, 1999) 경험을 정서적 공감 결과로 측정하였다. 유사 공감정서는 특정 상황에서 대상자가 경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서를 공감자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자를 향한 연민이나 동정심과 같은 반응적 공감정서(reactive empathy)와 구분되는 개념으로,²⁾ 부당하게 차별받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조망수용의 효과가 반응적 공감정서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유사 공감정서에서 발생하기도 하였다(Dovidio et al., 2004; Finlay & Stephan, 2000). 이는 외집단 대상자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는 것으로, 공감자가 속한 내집단으로부터의 차별로 인해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처한 외집단 대상자에게는 동정심 등의 반응적 공감정서보다는 화, 분노와 같은 유사 공감정서가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차별받는 외집단 대상자에 대한 유사 공감정서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셋째, 외집단 공감이 예측하는 종속변수로 외집단 전체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를 포함하였다. 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행동의도로 이어진다(Batson et al., 2002; Batson, Polycarpou, et al., 1997; Shih et al., 2009). 따라서 본 연구가설에 일관되게 공동내집단정체성과 타인초점 조망수용의 조합이 외집단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예측한다면, 대상자에 대한 공감은 외집단 전체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를

예측할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구 2에서는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상호작용이 외집단 대상자에 대한 공감을 예측하는지 반복검증하고,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상호작용이 외집단 공감을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1에서 사용된 조망수용 초점 조작을 포함하여 전체 독립변수 조작 절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설계

연구 2는 2019년 5월에 실시되었고, 대한민국(남한) 학부생 142명이 참가사례비를 받고 실험에 참여하였다(남 64명; 연령 평균 = 19.60, 표준편차 = 1.68). 연구 조건은 2(내집단정체성 우세성: 남한 vs. 한민족) × 2(조망수용: 자기초점 vs. 타인초점) 참가자 간 요인 설계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연구 안내를 받고 사전 동의 후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네 가지 실험조건 중 하나에 무선배정되었다. G*Power(Faul et al., 2007)를 이용한 사후 분석 결과, 표본 수가 142명이고 두 독립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는 변량분석에서 중간 효과 크기($f = 0.25$)일 때 검정력($1 - \beta$) > .84로 나타나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였다.

절차

참가자들은 지정된 실험실에 방문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는 ‘사회현상 인식 조사 연구’로 안내되었고, 연구 설명문에서 내집단정체성 우세성이 조작되었다.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에서는 본 연구가 다국가 공동연구이며, 한국 참가자들은 ‘남한(South Korea)’

2) 유사 공감정서와 반응적 공감정서의 구분은 공감의 정서적 결과를 정서 일치(emotion matching)와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으로 분류하는 모형(Batson & Ahmad, 2009)과도 일관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중 하나에 관한 인식에 응답하게 된다고 안내하였다.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는 본 연구가 다민족 공동연구이며, 한국 참가자들은 ‘한민족(Han-ethnicity)’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 중 하나에 관한 인식에 응답하게 된다고 안내하였다. 이 절차는 실험실에서 응답자들에게 특정한 내집단정체성의 현저성(salience)을 높여주는 것으로, 내집단정체성 우세성을 조작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Stone & Crisp, 2007; Waldzus, Mummendey, Wenzel, & Weber, 2003). 이후 참가자들은 사회현상에 관한 기사문을 읽기에 앞서 모든 참가자의 독해 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절차에 참여했다. 이 절차에서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조망수용 초점이 조작되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남한(또는 한민족) 사회현안에 관한 기사문을 받았다. 기사문은 실제 기사를 활용하여 재구성되었고, 남한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 대학생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탈북 학생들의 학구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및 생활 불안, 학업능력 격차로 인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며, 자퇴 및 휴학 등의 중도 이탈이 빈번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탈북민 대학생의 경험을 인터뷰 형식으로 제공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탈북민 대학생은 영어로 진행된 첫 대학 수업에서의 당혹감과, 학업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 학습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기사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은 기사문에 등장했던 ‘탈북민 대학생’에게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는 유사 공감정서와,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의도에 응답했다. 그리고 질문지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내집단정체성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조작점검을 위한 문항에 응답했다. 전체 응답이 완료되면 사후설명을 시행하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측정변수

외집단 공감(유사 공감정서)

응답자들은 기사를 읽는 동안이나 읽은 후, “불편함”, “화”, “분노” 정서가 느껴지는 정도에 응답했다(1점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7점 = 매우 강하게 느낀다). 각 정서는 부당한 상황에 처한 인물에게 공감했을 때 경험할 것으로 여겨지며, 선행 연구(정진오, 최훈석, 2022; Finlay & Stephan, 2000)에서 사용된 바 있다. 자료 분석에는 세 정서 문항의 평균(Cronbach's $\alpha = .84$)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사문에 등장한 인물에게 강하게 공감한 것을 의미한다.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로, 선행 연구(Waldzus et al., 2003)에서 제안된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행동 단면을 측정했다: 외집단과의 접촉의도(예: “북한이탈주민 대학생들과 교류하는 교내 행사에 참석한다.”), 도움행동의도(예: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보호 단체에 가입하여 지원 활동을 한다.”), 관용(예: “북한이탈주민들과 남한사람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한다.”). 참가자들은 각 단면을 측정하는 세 개 문항씩 총 9개 문항에 응답했으며(1점 = 전혀 아니다 ~ 7점 = 매우 그렇다), 탐색적요인 분석 결과 1요인 모형이 타당하여(1요인설명량 56.96%) 전체 아홉 개 문항의 평균(Cronbach's $\alpha = .90$)을 산출하여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조작점검

조망수용 초점의 조작점검을 위해, 참가자들에게 앞서 기사문을 읽을 당시의 독해 방식을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한 후에 자기초점 조망수용 정도(예: “만약 내가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를 떠올려보았다.”)와 타인초점 조망수용 정도(예: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사건을 생각하며 글을 읽었다.”)를 각각 묻는 두 문항씩 총 네 문항을

제시하였다(1점 = 전혀 아니다 ~ 7점 = 매우 그렇다). 분석에는 각 초점을 묻은 문항 간 평균(자기초점 조망수용 Cronbach's $\alpha = .77$, 타인초점 조망수용 Cronbach's $\alpha = .86$)을 사용하였다.

내집단정체성 우세성 조작은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를 묻는 각 세 개 문항씩 총 여섯 개 문항을 이용하여 조작 효과를 확인하였다. 해당 문항은 연구 1에서 사용된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했으며(1점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9점 = 매우 강하게 느낀다), 참가자들의 평상시 개인차 수준이 아닌 실험실에서 일시적으로 우세해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기사를 읽을 당시의 생각과 느낌을 떠올리면서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분석에는 남한동일시(Cronbach's $\alpha = .89$)와 한민족동일시(Cronbach's $\alpha = .93$) 평균을 각각 사용하였다.

결 과

연구 조건과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치와 변수 간 상관은 표 3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수(조건)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종속변수였던 유사 공감정서와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 간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r = .33$, $p < .001$. 각 연구 조건에서 종속변수의 기술통계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조작점검

조망수용 초점(자기 vs. 타인)과 내집단정체성 우세성(한민족 vs. 남한)의 조작 효과성을 각각 점검하기 위해 조작점검 측정 점수들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했다. 조작점검 점수에서 해당 독립변수의 주효과가 유의하고, 다른 독립변수의 주효과와 독립변수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조작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기초점 조망수용 점수와 타인초점 조망수용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자기초점 조망수용 점수에서는 두 독립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_s < 1.20$, $p_s > .275$. 반면 타인초점 조망수용 점수에서 조망수용 초점의 주효과가 통계

표 3. 연구 2: 연구 조건과 측정변수 기술통계치 및 변수 간 상관

	1	2	3	4	5	6	7	8
1. 조망수용 초점	1							
2. 내집단정체성 우세성	.00	1						
3. 유사 공감정서	.04	-.02	1					
4. 외집단 우호적 행동의도	-.03	.05	.33**	1				
5. 자기초점 조망수용	.09	-.02	.22**	.15	1			
6. 타인초점 조망수용	.20*	.07	.18*	.16	.56**	1		
7. 남한동일시	.11	.00	-.02	.18*	.29**	.18*	1	
8. 한민족동일시	.15	.17*	.18*	.28**	.29**	.23**	.48**	1
평균			3.15	3.94	5.64	5.86	6.53	5.29
(표준편차)			(1.45)	(1.31)	(1.28)	(1.18)	(1.61)	(1.83)

주. $N = 142$; * $p < .05$, ** $p < .01$; 조망수용 조건은 자기초점 = 0, 타인초점 = 1로 점수화함. 내집단정체성 우세성 조건은 남한 = 0, 한민족 = 1로 점수화함.

표 4. 연구 2: 조건별 종속변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수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
		(<i>n</i> = 36)	(<i>n</i> = 36)	(<i>n</i> = 35)	(<i>n</i> = 35)
유사 공감정서	평균	3.39	2.98	2.79	3.44
	(표준편차)	(1.62)	(1.30)	(1.29)	(1.53)
외집단 우호적 행동의도	평균	3.90	3.85	4.04	3.96
	(표준편차)	(1.47)	(1.25)	(1.23)	(1.31)

적으로 유의하였고, $R(1, 138) = 5.84, p = .017$, $\eta_p^2 = .04$, 자기초점 조건($M = 5.62, SD = 1.33$)보다 타인초점 조건($M = 6.09, SD = 0.97$)의 점수가 컸다. 타인초점 조망수용 점수에서 내집단 정체성의 주효과와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_s < 0.65, ps > .421$. 종합하여, 자기초점 조망수용 점수에서는 조망수용 조건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타인초점 조망수용 점수는 조작 조건에 일관된 방향으로 차이가 관찰되어 조망수용 초점 조작이 효과적이었음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남한동일시와 한민족동일시 점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남한동일시 점수에서는 두 독립변수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_s < 1.76, ps > .186$. 반면 한민족동일시에서는 내집단정체성 우세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R(1, 138) = 4.18, p = .043$, $\eta_p^2 = .03$,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M = 4.99, SD = 1.79$)보다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M = 5.60, SD = 1.83$)에서 한민족동일시 수준이 높았다. 한민족동일시 수준에서 조망수용 초점의 주효과와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_s < 3.17, ps > .077$. 탐색적으로,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차이값(한민족 - 남한)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에서 내집단정체성 우세성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R(1, 138) = 4.25, p = .041$, $\eta_p^2 = .03$,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M = -1.53, SD = 1.91$)보다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M = -0.93, SD = 1.55$)에서 한민족동일시의 상대적인 수준이 높았다.³⁾ 한민족동일시와 남한동일시의 차이값에서 다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F_s < 0.91, ps > .342$. 종합하여,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보다 한민족정체성의 절대적이거나 상대적인 크기가 컸으므로 공동내집단정체성 우세성 조작이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외집단 공감

외집단 공감 결과 지표인 유사 공감정서 경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조망수용 초점과 내집단정체성 우세성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F_s < .25, ps > .621$, 조망수용 초점과 내집단정체성 우세성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1, 138) = 4.74, p = .031$, $\eta_p^2 = .03$. 가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3) 연구 참가자들이 평균적으로 한민족동일시보다 남한동일시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도 차이값의 평균이 음수(-)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조건 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를 근거로,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보다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 한민족동일시의 상대적 우세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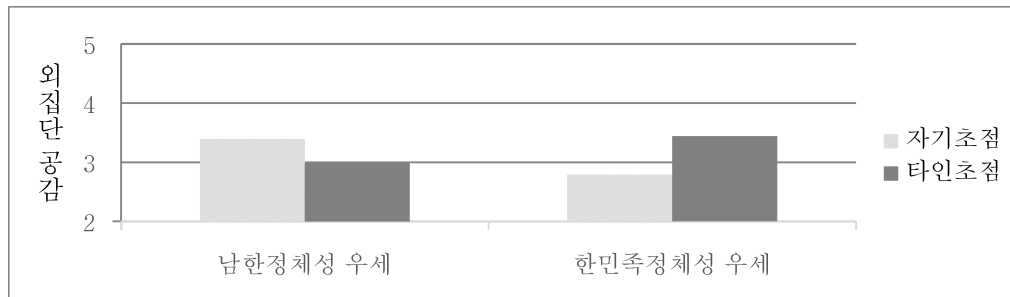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2: 내집단정체성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 간 상호작용효과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에서는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F(1, 138) = 1.43, p = .233, \eta_p^2 = .01$,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양방향검증 시 경계선에서 유의하였다, $F(1, 138) = 3.52, p = .063, \eta_p^2 = .03$. 구체적으로, 한민족정체성이 우세할 경우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M = 2.79, SD = 1.29$)보다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M = 3.44, SD = 1.53$)에서 참가자들의 유사 공감정서 경험 수준이 높았다(그림 2). 이는 본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외집단 우호적 행동의도에 대한 공감의 매개효과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사 공감정서 경험을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0의 PROCESS macro v.4.0, model 7(Hayes, 2018)을 사용하여 실시했다. 분석 결과, 내집단정체성 우세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사 공감정서 수준을 매개로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효과가 유의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 $b = 0.312, SE_b = 0.163, 95\%$ 신뢰구간 $[0.030, 0.673]$. 구체적으로,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보다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의 유사 공감정서 수준이 높았고, 이를 매개로 외집단인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

한 우호적 행동의도가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간접효과 $b = 0.192, SE_b = 0.117, 95\%$ 신뢰구간 $[0.002, 0.457]$. 반면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에서는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유사 공감정서 수준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이를 매개로 하는 외집단 우호적 행동의도에 대한 예측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간접효과 $b = -0.121, SE_b = 0.105, 95\%$ 신뢰구간 $[-0.342, 0.082]$. 종합하여, 한민족정체성이 우세하며 동시에 외집단 성원에게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 높은 수준의 유사 공감정서를 매개로 외집단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의도가 정적으로 예측되었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두 독립변수의 조작 효과성을 검증하여, 실험실에서 참가자들의 공동내집단정체성 우세성을 조형하는 것이 가능하며 조망수용 초점 역시 분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당한 차별을 겪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정서적 공감 결과의 지표로 유사 공감정서 경험을 측정하여 두 독립변수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공동내집단정체성인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 외집단 성원에게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보다 유사 공감정서 경험 수준이 높았다. 반면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에서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공감 결과에서 차이가 없었다. 나아가, 연구 2에서는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공감이 외집단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여, 공동내집단정체성 우세성과 타인초점 조망수용의 상호작용효과가 외집단 공감을 매개로 외집단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의도를 증진함을 보였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외집단 공감을 통해 집단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종합논의

남북한은 고착된 갈등 관계이면서도, 구성원들은 공동내집단정체성인 한민족정체성을 공유한다. 한민족정체성은 남북한 관계에서 집단 간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되어왔다(예: 유연재, 김혜숙, 2000; 최훈석 등, 2019).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정체성이 긍정적인 외집단 공감의 토양이 될 것으로 추론하고, 공감의 과정요인인 조망수용 초점의 효과가 한민족정체성 우세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남한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편의 연구 결과, 한민족정체성이 우세할 때 외집단 성원인 북한이탈주민에게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할 경우, 자기초점 조망수용을 할 경우보다 대상자에 대한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이 증진되었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 전체에 대한 우호적인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반면 남한정체성이 우세할 때, 즉 한민족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에는 조망수용의 초점에 따른 외집단 공감 경험에서 차이가 없었다. 두 편의 연구에서 한민족정체성 우세성을 측정하거나 조작하고 조망수용 초점을 조작하여 외집단 공감에 대한 인과적인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공감 대상자를 대학생 또는 경범죄자로 설정하여 다양한 특성의 외집단 성원에게 성공적인 공감 경험이 가능함을 보였다.

본 연구 함의와 제한점

집단 간 편견이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외집단 공감의 효과성을 검증한 기존 문헌에서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방향의 효과, 또는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혼재된 양상을 보여왔다. 이는 공감이 선행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구성되는 구조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이며(Batson, 2009b; Davis, 2006), 각 집단 간 관계에서 고유하게 작용하는 사회정체성의 효과를 정교화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수준의 남북한을 포섭하는 상위수준의 공동내집단정체성인 한민족정체성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남북한 구성원이 상호 적대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예: 김혜숙, 2000; 양문수 등, 2019), 한민족정체성이 우세할 경우 외집단도 공동의 내집단으로 범주화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외집단 공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론했다. 또한, 조망수용의 유형이 자기초점과 타인초점으로 구분되며(Batson, 2009a; Davis et al., 2004), 자기초점 조망수용에서는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타인초점 조망수용을 했을 때 외집단 공감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편의 연구에서 본 연구가설과 일관된 결과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고착된 갈등 관계이면서도 축소된 사회정체성 구조가 존재하는 집단 간 맥락에서 외집단에 대한 조망수용의 초점과 공동내집단정체성의 조합효과를 정교화하여 검증한 최초의 실증연구이다.

공동내집단정체성이 우세하더라도 자기초점 조망수용이 외집단 공감을 증진하지 못한 이유는 부정적 메타고정관념의 활성화와 내집단 투사에 기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메타고정관념의 활성화나 이로 인한 평가 우려를 직접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제를 직접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내집단 투사의 경우 연구 2에서 부가적으로 측정되었고, 이원변량분석 결과 한민족정체성이 우세할 때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에서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보다 내집단 투사 수준이 높았다. 이는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자기초점 조망수용이 조합됐을 때의 역효과로 해석 가능하지만, 연구 2에서 측정된 내집단 투사가 종속변수인 외집단 공감(유사 공감정서 경험)이나 외집단에 대한 우호적 행동의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내집단 투사가 외집단 공감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계에 관한 논리적인 추론과 연구 방법의 보완을 통해서 내집단 투사와 외집단 공감의 관계를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⁴⁾

외집단 공감에 대한 자기초점 조망수용과 타인초점 조망수용의 효과에 관련하여, 본 연구는 통제 조건(예: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보도록 지시하거나, 아무런 지시도 없는 조건; Batson, Early, et al., 1997; Dovidio et al., 2004)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초점 조망수용의 역효과 또는 타인초점 조망수용의 순효과를 해석하는 데 제약이 있다. 조망수용 초점을 조작하고 통제 조건을 포함한 선행 연구에서는 통제 조건과 자기초점 조건은 유사한 결과를 보인 반면, 이 두 조건과 타인초점 조건 간에는 차이가 관찰된 바 있다(Batson, Early, et al., 1997; Vorauer & Sasaki, 2014). 또한, 연구 2에서 조망수용 조작 효과성

을 검증했을 때, 타인초점 조건에서 자기초점 조건보다 타인초점 조망수용 수준이 높았고, 자기초점 조망수용 수준은 조건 간 차이가 없었다. 이는 두 조건 간 공감 차이가 타인초점 조망수용 정도의 차이에 일부 기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후속 연구를 통해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외집단 공감 결과의 지표로서 인지적 공감(‘심정 이해’)과 정서적 공감(유사 공감정서 경험)을 모두 다루었다. 이는 공감 결과를 인지와 정서의 다요인으로 규정한 주요 문헌의 제안(Davis, 1994, 2006)과 일관된다. 또한, 외집단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상황에서 유사 공감정서 경험이 핵심 요인임을 전제한 선행 연구(Finlay & Stephan, 2000; Stephan & Finlay, 1999)를 반복검증한 결과로써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정서적 공감을 유사 공감정서뿐만 아니라 반응적 공감정서로 확대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상을 향한 연민이나 동정심 등의 반응적 공감정서에서도 같은 결과가 관찰되는지, 또는 효과가 없거나 다른 양상이 관찰되는지 검증할 수 있다. 또는 공감의 또 다른 인지적 결과이자 편견을 경감하는 요인 중 하나로, 조망수용이 대상자의 행동을 귀인하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Vescio et al., 2003)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반응적 공감정서 경험이 저지위이거나 사회적 약자인 외집단 성원에 대한 온정주의적이거나 시혜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장래 연구 과제

첫째, 외집단 공감에서 조망수용의 효과를 다원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조망수용의 유형을 자기 또는 타인초점뿐만 아니라 인지 또는 정서초점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도은별, 최훈석, 2022). 인지초점 조망수용은 메타고정관념이나 내집단 투사 등의 역효과를 유발하지만 정서

4) 연구 2에서는 벤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한민족-남한 유사성과 한민족-북한 유사성 간의 차이값을 구하여 내집단 투사를 측정했다(Waldzus & Mummendey, 2004). 내집단 투사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각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8, 138) < 1.07$, $p > .303$, 두 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F(1, 138) = 4.54$, $p = .035$, $\eta_p^2 = .03$. 단순주효과 분석 결과, 남한정체성 우세 조건에서는 조망수용 초점에 따른 차이가 없었지만, $F(1, 138) = 1.28$, $p = .260$, $\eta_p^2 = .01$, 한민족정체성 우세 조건에서 자기초점 조망수용 조건($M = 0.60$, $SD = 1.06$)에서 타인초점 조망수용 조건($M = 0.09$, $SD = 1.22$)보다 내집단 투사 수준이 높았다, $F(1, 138) = 3.52$, $p = .063$, $\eta_p^2 = .03$. 그러나 내집단 투사와 외집단 성원에 대한 유사 공감정서 경험, 그리고 우호적인 외집단 행동의도와와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순서대로 $r = -.01$, $p = .916$; $r = -.08$, $p = .368$.

초점 조망수용이 대상에 대한 유사 또는 반응적 공감정서를 야기한다면(참조: Galinsky, Maddux, Gilin, & White, 2008) 공동내집단정체성과 인지 또는 정서초점 조망수용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본 연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가설화하여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조망수용의 정도를 포함한 공감의 기질적 개인차를 측정하여(Davis, 1983), 충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의 효과를 정교화하여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둘째, 본 연구는 남한사람들이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외집단 구성원인 북한이탈주민을 공감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호감도와 신뢰도 등의 태도가 유사하지만(김혜숙, 2007), 본 연구 결과가 북한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지 정확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공감이 북한사람 전체에 대한 태도와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도 검증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사람의 하위집단으로 여겨질수도, 또는 북한 사회를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북한사람과는 다른 대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북한사람과 북한이탈주민을 구분하여 인지, 정서, 행동경향성의 태도 요소, 그리고 심리적 거리감이나 북한 및 남한사람들과의 유사성 인식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한 실증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사람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인식을 상세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심리기제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더 넓은 표본에서 연구 결과가 반복검증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약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20·30세대에서 우세하다는 점에서(강원택, 2020; 김범수 등, 2023), 본 연구는 한민족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두 편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남한정체성과 한민족정체성을 측정했을 때 절대적인 수치에서 남한정체성이

한민족정체성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정체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경우에 타인초점 조망수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한민족정체성이 강한 중장년층에서도 같은 결과가 관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장기적으로 북한사람들에게서도 한민족정체성과 조망수용 초점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과 같이 구성원 간 일상적인 접촉이 오랫동안 단절된 맥락에서, 외집단 성원에 대한 조망수용은 일종의 심적 시연(mental simulation; Batson, 2009a)이자 상상 접촉(imagined contact; Crisp & Turner, 2009)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대중매체나 도서,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처해있는 비정형화된 외집단 성원에 노출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조망수용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집단 간 화해 및 심리적 통합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외집단과의 관계에서 공동내집단정체성을 우세하게 조형해 줄과 동시에 자기초점보다는 타인초점으로 외집단 구성원들의 생각과 느낌을 떠올리고 이해하도록 하는 전략을 적용하여 교육 및 일상적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공동내집단정체성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 상호적인 공감을 증진하여 다양성의 강점은 살리고 부작용은 예방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방향의 연구도 필요하다.⁵⁾

저자소개

이하연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회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집단 및 공동체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고, 공감, 고정관념

5) 본 논의를 제안한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한다.

및 편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남북한 관계와 평화, 정치태도 및 행동 등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집단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 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번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20). [한국인의 정체성] 한국인이 보는 역사, 민족, 국가, 그리고 세계_한국인의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 15년의 변화. EAI 위킹페이퍼, 1-21.
- 김범수, 김병로, 김성희, 김학재, 이성우, 조용신, 조현주, 김민지 (2023). 2023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김혜숙 (2000). 북한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2), 115-133.
- 김혜숙 (2007).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가 소수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91-104.
- 도은별, 최훈석 (2022). 관점취하기 초점이 외집단에 대한 동맹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초점과 정서-초점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2), 145-163.
- 박주화, 김갑식, 민태은, 윤광일, 지병근, 구본상 (2023). KINU 통일의식조사 2022. 통일연구원.
- 박찬, 최훈석 (2023). 남북통합 행동의도에서 한민족 정체성과 국가 정체성의 상호작용: 집합적 죄책감을 매개로 하는 조절된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1), 89-100.
- 양문수, 이우영, 이하연 (2019). 남북한 주민의 상호 인식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28(1), 105-133.
-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 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 이하연, 권영미, 서정길, 박주화, 최훈석 (2022). 한국인의 한국인의 이중 사회정체성과 내집단 투사, 남북한 통일태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4), 281-306.
- 이하연, 최훈석, 노중현, 도은별, 한지민 (2023). 남북한 관계에서 한민족 범주복잡성과 한민족 동일시가 외집단 관용 및 집단 간 통합지향 행동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7(2), 139-158.
- 전우영, 조은경 (2000).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과 통일에 대한 거리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167-184.
- 정진오, 최훈석 (2022). 집단 간 갈등상황에서 외집단의 공감 메시지가 대상의 분노 및 집단 간 회피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6(3), 187-207.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心情心理):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8(1), 1-16.
- 최훈석, 이하연, 정지인 (2019). 청소년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3(4), 45-59.
- 최훈석, 이하연, 권영미, 박주화 (2021). 통일에 대한 태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7(3), 259-284.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Sage.
- Aron, A., Aron, E. N., &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596-612.
<https://doi.org/10.1037/0022-3514.63.4.596>
- Bar-Tal, D. (2000).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21(2), 351-365.
<https://doi.org/10.1111/0162-895X.00192>
- Bar-Tal, D.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11), 1430-1453.
<https://doi.org/10.1177/0002764207302462>
- Batson, C. D. (2009a). Two forms of perspective taking: Imagining how another feels and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In K. D. Markman, W. M. P. Klein, & J. A. Suhr (Eds.), *Handbook of imagination and mental simulation* (pp. 267-279). Psychology Press.
- Batson, C. D. (2009b). These things called empathy: Eight related but distinct phenomena. In J. Decety & W. Ickes (Eds.),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pp. 3-15). Boston Review.
<https://doi.org/10.7551/mitpress/9780262012973.03.0002>
- Batson, C. D. (2011). *Altruism in humans*. Oxford University Press.
- Batson, C. D., & Ahmad, N. Y. (2009). Using empathy to improve intergroup attitudes and relations. *Social Issues and Policy Review*, 3(1), 141-177.
<https://doi.org/10.1111/j.1751-2409.2009.01013.x>
- Batson, C. D., Batson, J. G., Slingsby, J. K., Harrell, K. L., Peekna, H. M., & Todd, R. M. (1991). Empathic joy and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3), 413-426.
<https://doi.org/10.1037/0022-3514.61.3.413>
- Batson, C. D., Chang, J., Orr, R., & Rowland, J. (2002). Empathy, Attitudes, and Action: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Motivate One to Help the Grou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2), 1656-1666.
<https://doi.org/10.1177/014616702237647>
- Batson, C. D., Early, S., & Salvarani, G. (1997). Perspective taking: Imagining how another feels versus imagining how you would fe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7), 751-758.
<https://doi.org/10.1177/0146167297237008>
- Batson, C. D., Lishner, D. A., & Stocks, E. L. (2015). The empathy-Altruism hypothesis. In D. A. Schroeder & W. G. Graziano (Eds.), *The Oxford handbook of prosocial behavior* (pp. 259-281).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93/oxfordhb/9780195399813.013.023>
- Batson, C. D., Polycarpou, M. P., Harmon-Jones, E., Imhoff, H. J., Mitchener, E. C., Bednar, L. L., Klein, T. R., & Highberger, L. (1997). Empathy and attitudes: Can feeling for a member of a stigmatized group improve feelings toward the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1), 105-118.
<https://doi.org/10.1037/0022-3514.72.1.105>
- Berndsen, M., Thomas, E. F., & Pedersen, A. (2018). Resisting perspective-taking: Glorification of the national group elicits non-compliance with perspective-taking instruct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9, 126-137.
<https://doi.org/10.1016/j.jesp.2018.07.007>
- Berthold, A., Leicht, C., Methner, N., & Gaum, P. (2013). Seeing the world with the eyes of the outgroup-The impa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prototypicality of the ingroup relative to the outgroup.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6), 1034-1041.
<https://doi.org/10.1016/j.jesp.2013.07.007>
- Bruneau, E. G., Cikara, M., & Saxe, R. (2017). Parochial empathy predicts reduced altruism and the endorsement of passive harm.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8(8), 934-942.

- <https://doi.org/10.1177/1948550617693064>
- Cikara, M., Bruneau, E., Van Bavel, J. J., & Saxe, R. (2014). Their pain gives us pleasure: How intergroup dynamics shape empathic failures and counter-empathic respons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5, 110-125. <https://doi.org/10.1016/j.jesp.2014.06.007>
- Crisp, R. J., & Turner, R. N. (2012). The imagined contact hypothesis. In J. M. Olson & M. P. Zanna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6, pp. 125-182).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B978-0-12-394281-4.00003-9>
- Davis, M. H. (1983).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126. <https://doi.org/10.1037/0022-3514.44.1.113>
- Davis, M. H. (1994). *Empathy: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Westview Press.
- Davis, M. H. (2006). Empathy. In J. E. Stets & J. H. Turner (Eds.),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Emotions* (pp. 443-466).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0-387-30715-2_20
- Davis, M. H., Conklin, L., Smith, A., & Luce, C. (1996).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s: A merging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4), 713-726. <https://doi.org/10.1037/0022-3514.70.4.713>
- Davis, M. H., Soderlund, T., Cole, J., Gadol, E., Kute, M., Myers, M., & Weihing, J. (2004). Cognitions Associated With Attempts to Empathize: How Do We Imagine the Perspective of Anothe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2), 1625-1635.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183>
- Dovidio, J. F., Gaertner, S. L., & Saguy, T.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1), 296-330. <https://doi.org/10.1080/10463280701726132>
- Dovidio, J. F., ten Vergert, M., Stewart, T. L., Gaertner, S. L., Johnson, J. D., Esses, V. M., Riek, B. M., & Pearson, A. R. (2004). Perspective and Prejudice: Antecedents and Mediating Mechanism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12), 1537-1549. <https://doi.org/10.1177/0146167204271177>
- Epley, N., Caruso, E. M., & Bazerman, M. H. (2006). When perspective taking increases taking: Reactive egoism in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5), 872-889. <https://doi.org/10.1037/0022-3514.91.5.872>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 Finlay, K. A., & Stephan, W. G. (2000).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The effects of empathy on racial attitud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0(8), 1720-1737.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0.tb02464.x>
- Gaertner, S. L., Dovidio, J. F., Anastasio, P. A., Bachman, B. A., & Rust, M. C. (1993).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Recategorization and the Reduction of Intergroup Bia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4(1), 1-26. <https://doi.org/10.1080/14792779343000004>
- Gaertner, S. L., Mann, J., Murrell, A., & Dovidio, J. F. (1989).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benefits of recatego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2), 239-249.

- <https://doi.org/10.1037/0022-3514.57.2.239>
- Galinsky, A. D., & Ku, G. (2004). The Effects of Perspective-Taking on Prejudice: The Moderating Role of Self-Evalu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5), 594-604.
<https://doi.org/10.1177/0146167203262802>
- Galinsky, A. D., Ku, G., & Wang, C. S. (2005). Perspective-Taking and Self-Other Overlap: Fostering Social Bonds and Facilitating Social Coordination.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8(2), 109-124.
<https://doi.org/10.1177/1368430205051060>
- Galinsky, A. D., Maddux, W. W., Gilin, D., & White, J. B. (2008). Why it pays to get inside the head of your opponen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and empathy in negotiations. *Psychological Science*, 19(4), 378-384.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8.02096.x>
- Galinsky, A. D., Wang, C. S., & Ku, G. (2008). Perspective-takers behave more stereotypicall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2), 404-419.
<https://doi.org/10.1037/0022-3514.95.2.404>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Hodson, G., Choma, B. L., & Costello, K. (2009). Experiencing alien-nation: Effects of a simulation intervention on attitudes toward homosexual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4), 974-978.
<https://doi.org/10.1016/j.jesp.2009.02.010>
- Hogg, M. A., Abrams, D., & Brewer, M. B. (2017). Social identity: The role of self i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0(5), 570-581.
<https://doi.org/10.1177/1368430217690909>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295-309.
<https://doi.org/10.1037/0022-3514.70.2.295>
- Huang, Q., Peng, W., & Simmons, J. V. (2021). Assessing the evidence of perspective taking on stereotyping and negative evaluations: A p-curve analysi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4(8), 1306-1334.
<https://doi.org/10.1177/1368430220957081>
- Jung, J., Hogg, M. A., & Choi, H-S. (2016).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37(3), 341-350.
<https://doi.org/10.1111/pops.12252>
- Kim, D.-Y., & Oh, H.-J. (2001). Psychosocial aspects of Korean reunification: Explicit and implicit national attitudes and identity of South Koreans and North Korean defectors. *Peace and Conflict: Journal of Peace Psychology*, 7(3), 265-288.
https://doi.org/10.1207/S15327949PAC0703b_5
- Klimecki, O. M. (2019). The role of empathy and compassion in conflict resolution. *Emotion Review*, 11(4), 310-325.
<https://doi.org/10.1177/1754073919838609>
- Mummendey, A., & Wenzel, M. (1999). Social Discrimination and Tolerance in Intergroup Relations: Reactions to Intergroup Differ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3(2), 158-174.
https://doi.org/10.1207/s15327957pspr0302_4
- Myers, M. W., & Hodges, S. D. (2012). The structure of self-other overlap and its relationship to perspective taking. *Personal Relationships*, 19(4), 663-679.
<https://doi.org/10.1111/j.1475-6811.2011.01382.x>
- Myers, M. W., Laurent, S. M., & Hodges, S. D. (2014). Perspective taking instructions and self-other overlap: Different motives for helping.

- Motivation and Emotion*, 38(2), 224-234.
<https://doi.org/10.1007/s11031-013-9377-y>
- Roßnagel, C. (2000). Cognitive load and perspective-taking: Applying the automatic-controlled distinction to verbal communic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0(3), 429-445.
[https://doi.org/10.1002/\(SICI\)1099-0992\(200005/06\)30:3<429::AID-EJSP3>3.0.CO;2-V](https://doi.org/10.1002/(SICI)1099-0992(200005/06)30:3<429::AID-EJSP3>3.0.CO;2-V)
- Schubert, T. W., & Otten, S. (2002). Overlap of self, ingroup, and outgroup: Pictorial measures of self-categorization. *Self and Identity*, 1(4), 353-376.
<https://doi.org/10.1080/152988602760328012>
- Shih, M., Wang, E., Trahan Bucher, A., & Stotzer, R. (2009). Perspective taking: Reducing prejudice towards general outgroups and specific individual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5), 565-577.
<https://doi.org/10.1177/1368430209337463>
- Skorinko, J. L., & Sinclair, S. A. (2013). Perspective taking can increase stereotyping: The role of apparent stereotype confirm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1), 10-18.
<https://doi.org/10.1016/j.jesp.2012.07.009>
- Stephan, W. G., & Finlay, K. (1999). The role of empathy in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5(4), 729-743.
<https://doi.org/10.1111/0022-4537.00144>
- Stone, C. H., & Crisp, R. J. (2007). Superordinate and subgroup identification as predictors of intergroup evaluation in common ingroup contex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0(4), 493-513.
<https://doi.org/10.1177/1368430207081537>
- Stotland, E. (1969). Exploratory studies of empathy.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 pp. 271-313). Academic Press.
[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080-5](https://doi.org/10.1016/S0065-2601(08)60080-5)
- Stürmer, S., Snyder, M., Kropp, A., & Siem, B. (2006). Empathy-Motivated Helping: The Moderating Role of Group Member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7), 943-956.
<https://doi.org/10.1177/0146167206287363>
- Stürmer, S., Snyder, M., & Omoto, A. M. (2005). Prosocial Emotions and Helping: The Moderating Role of Group Member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32-546.
<https://doi.org/10.1037/0022-3514.88.3.532>
- Tarrant, M., Calitri, R., & Weston, D. (2012). Social identification structures the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Psychological Science*, 23(9), 973-978.
<https://doi.org/10.1177/0956797612441221>
- Thompson, L., & Loewenstein, G. (1992). Egocentric interpretations of fairness and interpersonal conflic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1(2), 176-197.
[https://doi.org/10.1016/0749-5978\(92\)90010-5](https://doi.org/10.1016/0749-5978(92)90010-5)
- Todd, A. R., Bodenhausen, G. V., Richeson, J. A., & Galinsky, A. D. (2011). Perspective taking combats automatic expressions of racial bia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6), 1027-1042. <https://doi.org/10.1037/a0022308>
- Todd, A. R., & Burgmer, P. (2013). Perspective taking and automatic intergroup evaluation change: Testing an associative self-anchoring accou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5), 786-802.
<https://doi.org/10.1037/a0031999>
- Vescio, T. K., Sechrist, G. B., & Paolucci, M. P. (2003). Perspective taking and prejudice reduction: The mediational role of empathy arousal and situational attribu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3(4), 455-472.
<https://doi.org/10.1002/ejsp.163>

- Vorauer, J. D., Martens, V., & Sasaki, S. J. (2009). When trying to understand detracts from trying to behave: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in intergroup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6(4), 811-827.
<https://doi.org/10.1037/a0013411>
- Vorauer, J. D., & Sasaki, S. J. (2014). Distinct effects of imagine-other versus imagine-self perspective-taking on prejudice reduction. *Social Cognition*, 32(2), 130-147.
<https://doi.org/10.1521/soco.2014.32.2.130>
- Waldzus, S., & Mummendey, A. (2004). Inclusion in a superordinate category, in-group prototypicality, and attitudes towards out-group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4), 466-477.
<https://doi.org/10.1016/j.jesp.2003.09.003>
- Waldzus, S., Mummendey, A., Wenzel, M., & Weber, U. (2003). Towards tolerance: Representations of superordinate categories and perceived ingroup prototypical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9(1), 31-47.
[https://doi.org/10.1016/S0022-1031\(02\)00507-3](https://doi.org/10.1016/S0022-1031(02)00507-3)
- Wenzel, M., Mummendey, A., & Waldzus, S. (2007). Superordinate identities and intergroup conflict: The ingroup projection model. In W. Stroebe & M. Hewstone (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18, pp. 331-372). Taylor & Francis.
<https://doi.org/10.1080/10463280701728302>

1 차원고접수 : 2024. 09. 20.

수정원고접수 : 2024. 11. 05.

최종게재결정 : 2024. 11. 08.

The Interaction Effect of Perspective-Taking Foci and Common Ingroup Identity on Outgroup Empathy in the Context of North-South Relations in Korea

Hayeon Le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The current research examined the interplay between common ingroup identity and two different types of perspective-taking (self-focused vs. other-focused) on outgroup empathy and positive intergroup behaviors in the context of North-South relations in Korea. Two laboratory studies were conducted with South Korean undergraduates. Study 1 measured levels of common ingroup identity ('Han' ethnicity), while Study 2 manipulated the salience of common ingroup identity among the participants. Both studies also independently manipulated the two types of perspective-taking. In both studies, we found evidence that other-focused perspective-taking enhanced outgroup empathy (cognitive empathy in Study 1, affective empathy in Study 2) to a greater extent than did self-focused perspective-taking when participants had a strong common ingroup identity. By contrast, when common ingroup identity was weak, the impact of the two types of perspective-taking on outgroup empathy did not differ from each other. Moreover, outgroup empathy positively predicted favorable intergroup behavioral intentions (in Study 2), indicating that the interactive effect of common ingroup identity and other-focused perspective-taking toward outgroup members indirectly predicted positive intergroup behavior.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the role of outgroup empathy in the context of intractable intergroup conflict and reconciliations.

Key words : Perspective-taking, Outgroup empathy, Common ingroup identity, North-South Korean relations, Intergroup reconciliation